

## 이탈리아 ITALY

###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법 개정

곽서희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지역학과·정치학과 강사

2019년, 유럽연합(EU)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Directive 1152), 일·가정양립(Directive 1158)에 관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지침을 발표하게 된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돌봄휴가 등과 같은 가족친화적 제도 정착을 통한 여성의 노동시장 활성화 및 양성평등 실현이었다. 유럽연합의 지침은 회원국들에 구속력이 있지만, 이행 방향과 수단은 일정 기한 내로 회원국들이 결정한다. 이에 따라 여러 회원국들이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에 시행 중이던 법을 개정하였는데, 본 원고에서는 이 중 2022년 8월부터 노동법을 개정한 이탈리아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탈리아 노동법 개정에 관한 법은 작년 8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우선 새로 적용되는 법에서는 정부에서 급여를 부담하고 권리로 보장받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7일에서 10일로 연장했다. 자녀를 출산한 여성 배우자가 본인의 휴가 일수를 양도하는 경우 1일 더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0% 유급인데, 상대 배우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출산 2개월 전 또는 출산 후 5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침해하는 고용주는 최소 516유로(한화 약 72만 6천 원)에서 최대 2,582유로(한화 약 363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비해 여성의 출산휴가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여성의 출산휴가는 총 5개월로, 보통 출산 전 2개월, 출산 후 3개월 사용한다. 그러나 직군이나 개인 사정에 맞춰 출산휴가 사용 시점을 유연하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데, 의료진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출산휴가는 최근 일일 소득의 80%를 받는 유급 휴직이다.

육아휴직의 경우, 기존에는 자녀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만 12세까지 연장되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많이 늘어난 것이다.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10개월이고, 남성이 최소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1개월이 추가되어 총 11개월이 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그중 휴직 급여를 받는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났다. 반면 육아휴직 급여는 일 임금의 30%를 받는데, 이는 이전과 동일하다. 그러나 올해부터 자녀가 만 6세가 되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중 한 명은 임금의 30%가 아닌 80%를 한 달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육아휴직은 일 단위뿐만 아니라 시간제로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유연근무제의 경우 이번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12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경우, 가족 구성원이 아파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요청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를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 개정된 법에서는 근로자가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전일제에서 시간제 근무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고 명시했다.

본 원고에서 언급한 가족 관련 각종 휴직 급여는 이탈리아 사회보장공단(Istituto Nazionale Previdenza Sociale, INPS)에서 관할하고 있다. 단, 공공기관 근로자, 사회보장공단(INPS)에 등록되지 않은 자영업자 등 일부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다.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휴직 대상자가 공단에 급여를 신청하면 심사 후 직접 받게 된다.

이탈리아 공영방송 Rai에서 이번 달 보도 된 기사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남성은 지난 10년여 간 38%p(퍼센트포인트)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2012년 배우자 출산휴가가 도입되었던 당시에는 주어진 휴가일수가 의무 1일, 추가 2일이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 비율은 2013년 19.23%에서 2018년 48.53%, 2021년 57.6%까지 증가해왔다. 2021년에는 출산 약 40만 건 중 약 15만 5천여 명의 남성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나 가족 구성원 돌봄을 이유로 사직하는 남성 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 자녀 양육 문제로 퇴직한 남성은 1,158명으로, 30,361명에 이르는 여성 퇴직자들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치만 최근 몇 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상당히 늘어난 수치라고 한다. 이탈리아 남성들이 퇴직한 이유로는 고용주가 전일제에서 시간제 근무로 변경해주지 않는다는 점, 일과 자녀 양육을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이탈리아 지사의 아동·청소년 정책 관련 담당자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탈리아 사회에서 자녀 양육은 여성의 몫으로 여기는 문화가 만연했는데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일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자녀와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남성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보았다. 물론 남아있는 과제도 있다. 주어진 제도적 권리를 사용하는 남성들은 대부분 대기업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정직원 유형에 집중되어 있고, 남부지방에 비해 북부지방이 약 17%p(퍼센트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두에 언급했듯, 유럽연합(EU)이 제정하는 지침은 구속력이 있지만 회원국들이 국내법으로 전환 및 이행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탈리아가 유럽연합이 2019년 제정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 일·가정양립에 관한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고 관련 법을 개정했다는 점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특히 제도적 재정비를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에서 여러 부분들이 개선되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번 이탈리아의 법 개정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 및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에 얼마나 기여하게 될 지는 향후 보다 체계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미국 UNITED STATES



### 새로운 육아보육(Affordable Child Care) 정책

김춘례 세인트조셉 대학교(Saint Joseph's University) 조교수

합리적인 가격의 육아보육시설(Affordable child care) 부족은 미국 내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미국인들이 부담하는 보육 비용은 집 대출금을 갚는 비용과 비슷하게 들어갈 정도로 높을 뿐 아니라 좋은 보육시설을 찾는 것 또한 힘든 현실이다. 보육의 부담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일선을 떠나야하고 그에 따라 많은 기업들도 필요한 인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Biden administration)는 보육 정책 관련해 수천억 달러 예산의 프로젝트를 제출했지만 현재 의회의 승낙을 받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다른 방안으로, 새롭게 개정된 CHIPS법(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and Science Act of 2022, 반도체 및 과학을 생산을 돕기 위한 인센티브 창조 법)을 통해 육아보육 시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을 내놓았다(NPR, 2023).

CHIPS법은 미국 내 제조업을 재활성화하고 보수가 높은 직업을 창출하며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성장을 가속화하려는 목적으로 2022년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의 통과로 2022년 3월 기준 많은 기업들이 미국 반도체 제조사업에 추가적으로 500억 달러 가까이 투자할 것을 발표하면서 총 1500억 달러의 비즈니스 투자를 유치하게 되었다(The White House, 2022).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CHIPS법을 이용해 바이든 정부가 새롭게 만든 육아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들이 CHIPS법으로 보장된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보육시설을 보장해야 한다. 육아보육시설은 반도체 업체 내에서 직접 보장하거나 혹은 외부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제공하는 옵션이 주어진다. 현재 미국의 제조업 근로자 중 29%는 여성이며 부족한 육아보육시설로 인해 연간 122억 달러의 수입 및 생산성 손실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반도체 분야 근로자 수를 늘리고 미국 내 반도체 사업이 더 이상 외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만드는 동시에 보육에 대한 부담감도 줄여줄 수 있게 하는 창조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USA Today, 2023).

이 정책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찬성과 반대 측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찬성하는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보육시설의 부족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제외된 것이 사실이며 합리적인 가격의 보육시설의 부족으로 제조사가 근로자를 찾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제조업은 7일,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육시설의 제공 없이는 근로자를 끌어들이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 법을 통해 해당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The New York Times, 2023).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비용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산국인 타이완에 비하면 44%가 높다. 또한 반도체 제조사들이 미국을 떠나기 시작한 이유도 고비용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조사들이 합리적인 가격의 보육시설을 보장하게 하는 새로운 정책은 제조사들의 비용 부담을 더욱 높일 것이라는 것이다(The New York Times, 2023). 이미 비용 측면에서 다른 나라와 경쟁하기가 어려운 미국 제조업자들이 보육에 대한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CHIPS법의 원래 취지대로 미국 내 제조업을 재활성화 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 법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미국 내 육아보육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과연 어떤 방법을 통해 육아보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이다. 미국 상무부(The Commerce Department)는 CHIPS법 지원금 신청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을 3월 3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 법이 육아보육 문제를 얼마나 해결하고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을 반도체 제조업에 끌어들이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볼 문제이다. 하지만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육아보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정책이 제안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EUR-LEX (EU 공식 법령 검색 웹 사이트) (2019.7.12) "Directive (EU) 2019/115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work-life balance for parents and carer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2010/18/EU",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9L1158> (접속일: 2023.3.22)
- L&E Global (2023.2.23) "Italy: What are the changes in regulations to ensure that working fathers can take a more proactive role in family responsibilities?", <https://leglobal.law/2023/02/23/italy-what-are-the-changes-in-regulations-to-ensure-that-working-fathers-can-take-a-more-proactive-role-in-family-responsibilities/> (접속일: 2023.3.22)
- Lockton (2022.9.6) "Italy expands family leave entitlements", <https://globalnews.lockton.com/italy-expands-family-leave-entitlements/> (접속일: 2023.3.22)
- Rai News (2023.3.19) "I papà italiani sono sempre più presenti: in aumento i congedi di paternità", <https://www.rainews.it/articoli/2023/03/festa-del-papa-aumentano-i-congedi-paternita-oltre-il-38-per-cento-in-piu-in-10-anni-2c9f4c32-fcd5-4dc1-ba9e-2e2b4161909a.html> (접속일: 2023.3.22)
- WTW (2022.9.13) "Italy: Family-friendly changes to labor law", <https://www.wtwco.com/en-EG/Insights/2022/09/italy-family-friendly-changes-to-labor-law> (접속일: 2023.3.22)

### 참고자료

- NPR (2023.3.18). " Biden has big ideas for fixing child care. For now a small workaround will have to do" <https://www.npr.org/2023/03/18/1164523186/biden-has-big-ideas-for-fixing-child-care-for-now-a-small-workaround-will-have-t> (접속일: 2023.3.21).
- The New York Times (2023.3.3). "A new child care requirement. A great idea - or a problem of semiconductor makers" <https://www.nytimes.com/2023/03/03/briefing/child-care-mandate-chips-bill-biden.html> (접속일: 2023.3.21).
- The White House (2022.8.9). "Fact Sheet: CHIPS and Science Act will lower costs, create jobs, strengthen supply chains, and counter China"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8/09/fact-sheet-chips-and-science-act-will-lower-costs-create-jobs-strengthen-supply-chains-and-counter-china/> (접속일: 2023.3.21).
- USA Today (2023.2.28). "Child care a requirement for chip makers seeking billions in incentives under Biden rules" <https://www.usatoday.com/story/news/politics/2023/02/28/child-care-required-chip-makers-applying-federal-funds/11358590002/> (접속일: 2023.3.21).